

연금 시장 리뷰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2012년 10대 희망요인

퇴직연금

- 동향 :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 변화
- 이슈 : 가계 재무위기와 재무관리교육의 필요성
- 퇴직연금통계 (2011년 12월 현재)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2011년 고용시장은 전년대비 개선

-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1년 고용시장은 전년대비 고용율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면서 상당히 개선되었음
 - 2011년 고용율은 59.1%로 전년대비 0.4%p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3.4%로 전년대비 0.3%p 하락하였음. 전체 취업자도 24,244천명으로 전년대비 41만 5000천명이 증가
 - 한편, 2011년 12월도 고용률이 58.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고, 실업률도 3.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며 고용시장 개선이 지속됨
- 2012년 고용시장은 선진국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 감소와 내수부진 등으로 위축될 전망

○ 금융 동향: 미 경제지표 개선과 유로존 위기 해결의 기대감으로 금융시장은 상승

- 프랑스와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프랑스·스페인의 국채 발행 성공과 미국 고용지표 등의 개선으로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월 5일 3.35%에서 1월 19일 현재 3.38%로 0.3%p 상승
 - 원/달러 환율은 프랑스 등 유로존 9개국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유로존 불확실성 해소의 기회로 보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1월 5일 1,154.0원에서 1월 19일 현재 1,137.0원으로 17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미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다우존스 등 해외지수가 상승하면서 2012년 1월 5일 1,863.7에서 1월 19일 현재 1,914.9로 51.2p 상승함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월5일	1월19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0.3	6.2	-	4.2	3.4	3.4	-	-	-
	산업생산(%)	-0.1	16.2	-	10.6	7.2	5.1	-	-	-
	소비자물가(%)	2.8	2.9	4.0	4.5	4.2	4.8	4.2	-	-
	실업률(%)	3.6	3.7	3.4	4.2	3.4	3.1	3.0	-	-
	경상수지(억달러)	327.9	282.1	241.8	26.1	54.9	71.7	91.8	-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4.04	3.72	3.62	3.80	3.68	3.60	3.41	3.35	3.38
	원/달러(원)	1,276.4	1,156.0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54.0	1,137.0
	코스피지수(P)	1,682.8	2,051.0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1,863.7	1,914.9

주: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011년 경상수지는 1~11월 합계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 이슈 : 2012년 10대 희망요인

■ 2012 년은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려울수록 희망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신감을 되찾고 내실과 경쟁력을 다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10 대 희망요인을 선정하였다.

■ 경제 · 산업

① FTA 허브 본격 시동

한-미 FTA 발효는 아시아-미국-EU 를 잇는 FTA 허브의 중간 지점이다. FTA 허브 구축은 수출 · 생산 · 투자를 증대시키고 국내 고용과 내수를 이끄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이는 포스트 무역 1 조 달러의 초석으로 교역 규모와 일자리 증대에 꾸준히 기여하고, 아시아-미국-유럽을 잇는 무역 · 투자 · 생산의 교두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상품 수출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FTA 허브를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조기 타결, 내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 ·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환율 관리가 필요하다.

② 의료산업의 눈부신 성장

GDP 대비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국내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IT.BT 의 융합, 그리고 줄기세포 기술의 상용화는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의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법.제도적인 장벽을 사전에 제거하여 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

③ 높은 성장세의 관광산업

2012 년은 한국의 관광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가 될 것이다. 2009 년부터 시작된 두 자리 수 외국인관광객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 년 외국인관광객 2 천만 명과 300 억 달러 관광수입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고 세계 10 대 관광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류의 확산,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제주 세계 7 대 자연경관 확정, 10 개의 세계문화유산 보유국의 지위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변화를 위해 MICE 산업 육성, 의료관광시장개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④ 선도적 연구개발 투자

한국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신기술분야 특허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며 높은 과학기술력으로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력은 이미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최근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R&D 투자를 늘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수 있는 과학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

⑤ Korea As No.1 시대의 도래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전통적인 한국의 세계 1 등 품목은 물론이고, TV, 냉장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도 기존 세계 일등 제품들이 주춤한 사이에 막강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의 제품들이 세계 일등 제품으로서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12 년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될 희망요인이다.

■ 교육·인프라

⑥ 우수한 인적 자원

우리나라는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 성장요소인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여 제 2 의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 높은 교육열과 인재를 중시하는 문화적 자산은 인적 자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왔다. 특히, 인적 자원의 질적 측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 차세대 성장 산업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⑦ 세계 최고수준의 '백본' 인프라

2011 년 IMD 발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2 위에 불과하지만, IT·교통·물류 등 백본(Backbone) 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이버 네트워크는 물론 KTX, 고속도로, 항공, 항만 등 하드웨어 인프라가 잘 갖춰져 한국경제의 강력한 수출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백본 인프라는 2012 년의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해결사 역할을 할 희망요인이다.

■ 사회 · 문화

⑧ 역동적인 국민성

단합과 희생정신으로 무장한 역동적 국민성은 위기 때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경제의 경이적인 발전을 일궈낸 내재적 힘은 위기 때마다 단결과 협동정신으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게 만든 공동체 의식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 추구를 향한 열정, 그리고 '98 금모으기 운동, '02 월드컵 거리 응원, '07 태안 오염제거 봉사활동 등 역경 속에서도 뚝고 나가는 긍정적 태도와 수많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적응력(ADAPT)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진 역동적인 국민성의 요소들을 좋은 방향으로 극대화시킨다면 2012년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향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⑨ 세계화된 한류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한류는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 최초의 문화 전파 사례로서 세계 문화 역사의 새로운 흐름을 창조하고 있다. 특히 한류의 세계화는 한국을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에서 문화 콘텐츠도 우수한 나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품에서 감성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한류는 한국 제품의 매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⑩ 기대되는 남북 관계

2012년 남북 관계는 양측 모두 정권교체기를 맞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6자회담의 재개 등으로 한반도 리스크의 감소와 함께 남북 교역 재개 및 남북한의 시너지 효과 등으로 남북 관계의 양적-질적 발전이 기대된다.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전후로 6자회담의 재개와 남북 회담의 재개로 남북 관계의 회복이 모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단되었던 남북 교역이 재개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등 남북 경협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SOC 사업과 지하자원 개발에 남한이 참여할 경우 남북 산업의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2012년 남북 관계의 전환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정은 물론 남북 경협 확대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가 성장 동력의 확보 및 남북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외 (02-2072-6213, dykim@hri.co.kr)

□ 동향 :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 변화

가. 노후준비의 필요성 증대와 노후준비 실태

노후준비 비율은 2011년 65.7%로 1998년에 비해 약 2배 증가

○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1」에 따르면 노인 인구의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해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65세 이상 가구주의 1세대 가구 비율은 1990년 24.8%에서 2010년 34.5%로 증가하였으며, 1인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20.0%에서 34.3%로 증가

※ 1세대 가구: 부부, 부부(가구주)와 미혼형제자매, 부부(가구주)와 기타친인척으로 구성됨

▷ 1세대 가구 비율(65세 이상): 1990년 24.8%, 2000년 33.9%, 2010년 34.5%

▷ 1인 가구 비율(65세 이상): 1990년 20.0%, 2000년 31.3%, 2010년 34.3%

-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1998년 89.9%에서 2010년 36.0%로 급격히 감소

▷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1998년 89.9%, 2006년 63.4%, 2010년 36.0%

-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비율도 2002년 53.0%에서 2011년 29.0%로 감소

▷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60세 이상): 2002년 53.0%, 2007년 40.0%, 2011년 29.0%

○ 노후준비를 하는 비율은 2011년 65.7%로 1998년 32.9%에 비해 약 2배 증가

- 노후준비 비율은 2011년 남자 73.2%, 여자 58.5%로 1998년 남자 43.4%, 여자 23.0%에 비해 성별 격차는 감소함

-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노후준비 비율이 80.5%로 가장 높으며,

- 중학교 졸업의 경우 2011년 60.3%로 1998년 22.9%에 비해 2.6배 가량 증가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의 차이가 더 커짐

<표 16> 노후준비 비율: 1998-2011

(단위: %)

	전체	성별		교육수준별			
		남자	여자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1998	32.9	43.4	23.0	23.7	22.9	34.5	51.2
2005	52.3	54.6	50.1	37.7	40.4	53.4	67.6
2011	65.7	73.2	58.5	38.6	60.3	64.0	80.5

주: 1998-2005년까지는 15세 이상, 2011년은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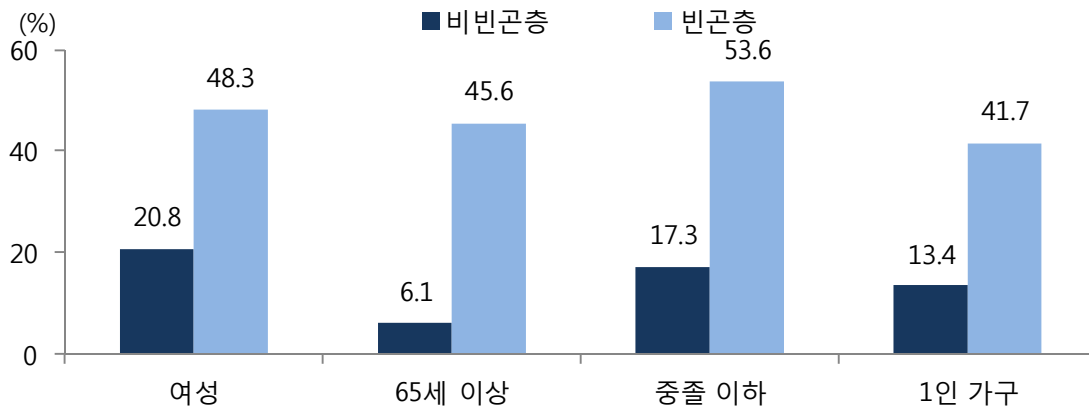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나. 빈곤층의 구성과 실태

여성가구주, 고령자, 저학력, 1인 가구에서 빈곤층의 비율이 높음

-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가구주 특성을 보면, 여성, 고령자, 1인 가구, 저학력자가 가구주일 때 빈곤층인 비율이 높음
 - 비빈곤층에서 여성가구주 비율은 20.8%인데 비해 빈곤층의 여성가구주 비율은 두 배 이상인 48.3%임
 -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비빈곤층에서는 6.1%인 반면, 빈곤층에서는 45.6%로 높음
 - 가구주가 중졸 이하일 때 비빈곤층의 비율은 17.3%, 빈곤층은 53.6%이며, 1인 가구에서 비빈곤층의 비율은 13.4%, 빈곤층은 41.7%로 차이를 보임

[그림 11] 빈곤층과 비빈곤층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비교: 2010



주: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구분은 증위소득 50% 선을 기준으로 구분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0.

○ 이들 각 집단의 평균소득을 보면, 전체 평균소득이 100일 때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평균소득은 38.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주 학력이 중졸 이하일 경우 평균소득은 81.6, 여성 가구주일 경우는 73.0, 1인 가구는 70.4로 모두 평균소득보다 낮음

<표 17> 집단별 평균소득 비교: 2010

	여성가구주	65세 이상 노인	중졸 이하	1인 가구
집단별 소득수준	73.0	38.4	81.6	70.4

주: 전국 가구의 평균을 100으로 하여 비교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0.

□ 이슈: 가계 재무위기와 재무관리교육의 필요성

경제의 3주체(가계, 기업, 정부) 중 한 요소인 “가계”는 기업의 소비자요 사회와 정부에 대한 공급자로서 기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재무적인 풍요와 안정을 위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하여 이 사회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와 개인소비주의의 발달로 파생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가계 재무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도전 중 외부적 요인으로서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 (금리, 환율, 물가 변동성) 등이 있으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소비통제 실패, 투자, 사기, 보종 등 의사결정 실패, 사업실패 및 실업 등이 있다. 오늘날의 가계는 바로 외부적 환경에 의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해 가계 내부적 소득위험과 의사결정 실패에 따른 위험도 함께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계를 둘러싼 도전은 가계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계의 수입 부분은 낮은 GDP경제 성장률로 인한 실질수입의 정체 또는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출부분에 대해서도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복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조세와 준조세부담, 장바구니 물가상승에 의한 생계비와 늘어난 가계대출금으로 인한 금융비용 등 가계의 고정비 부분이 증가하면서 가계를 재무 상황에 압력을 주고 있다. 최근 유럽 발 금융위기와 불확실성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투자 손실과 개인 투자의 손실 등으로 나타나 2011년 1/4분기부터 가계순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3/4분기에는 가계 순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가계재무 건전성에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융과 공학의 발달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개발된 대출과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스마트한” 소비자를 위한 투자용 상품이 교육되지 않은 일반 소비자에게 고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팔리고 있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해 가계의 체계적인 재무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재무관리는 주로 기업재무관리와 구별되며 가계 내의 재무적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여 가계가 목표로 하는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성취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가계재무관리에 대해 1994년 가먼.포그는 “가계재무관리(Personal Financial)란 ‘재무적 성공을 달성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개인이나 가계의 자원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정의하면서 주요 내용으로 재무계획, 현금 및 신용관리, 지출관리, 투자계획, 은퇴 및 유산계획 등을 다루었다.

가계는 사회와 글로벌 경제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가계경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가장 또는 주부의 역할은 더욱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가계의 재무적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인과 가정은 단순한 라이프스타일을 개발하고 성인으로서 가계재무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가정은 가계경제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개인과 가계의 재무적인 문제를 원활히 결정할 수 있도록 가계재무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철학(원칙)과 금융/재무지식과 기초적인 가계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훈련으로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다.

I. 가계경제를 위협하는 도전적 과제

○ 가계 경제의 의미

- 가계는 기업과 정부(국가)와 더불어 “경제의 3주체” 중 한 축을 담당
 -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정부(국가)에 대해서는 공급자로서 두 경제주체와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 발전하는 역동적인 관계 구조
- 이에 따라 대내외 경제 악화 시에는 경제 주체 상호간에 직간접인 영향 관계를 형성

○ 가계 외부적 도전

1) 가계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 실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는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이 된 가운데 최근 유럽 리스크와 지정학적 북한 리스크 등이 경제와 금융상황 예측을 어렵게 만들
- 세계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가 개별 가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
 - 일자리 위협: 저성장에 대비한 기업의 투자 감소, 청년 실업을 지속적으로 실업 증가 및 베이비부머의 퇴직과 생계형 창업 가속화,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 등
 - 금리, 주가 등의 급변동으로 인한 가계 저축/투자 위험 증가: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에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개인 투자위험 증대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퇴직금(연금) 등 연금 자산의 투자 손실 위험도 함께 증가
 - 고환율, 고유가 등의 여파: 식료품 가격과 교통비 상승하면서 2011년 3/4분기 저소득층의 앵겔계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2)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사회가 가계에 어떤 도전을 주는가?

- 고령 가구 증가 추세 및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전망
 - 통계청의 201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가구 수는 2000년 173만에서 2010년 298만 가구로 증가함.
 - 그 중 노인 1인 가구 비중은 2010년 6.0% (102만가구)에서 2020년 8.0%(151만가구), 2030년 11.8%(234만 가구)로 증가 전망.
-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직업 환경 변화에 대응
 -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가 서서히 실버관련산업(지식기반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문화관광서비스업 등), 향노화산업 등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
 -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노동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적응이 필요.

- 가계의 사회 부담금 증가
 - 통계청 “3 분기 가계동향” 발표에 따르면 가계지출 중 세금, 이자,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이 23.4%를 차지.
- 의료비 증가 및 저소득에 대비
 - 국내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노인 10가구 중 8가구(76.6%)로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가계 내부적 도전들

1) 고정비 증가 또는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여러 계층에서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로 인하여 적자가구를 시현
 - 2011년 3/4 분기 가계동향에 의하면 소득 1분위계층(하위 20%) 중 59.6%, 2분위, 3분위도 각각 31.8%, 22.5%의 적자 비율을 기록
 - 부채증가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식생활비의 증가가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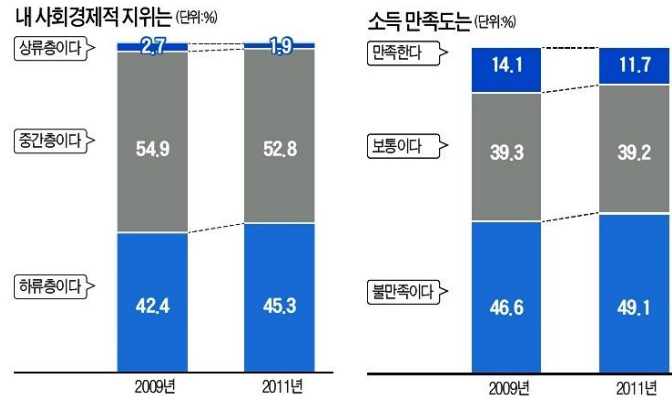
2) 중대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상황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가계 의사결정에 따른 위험으로서 중대한 실수 또는 실패(사기, 빚 보증, 금융(부채)선택, 투자)의 문제에 대비
 - 특히 고령으로 갈수록 개연성이 증대되며, 은퇴 후 사업의 실패나 실직으로 가계재정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 2010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생~1963년생)가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
 - 베이비부머 중 만형 격인 1955년생이 2010년에 55세가 되어 퇴직이 시작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 이들 노령계층들에 대한 재무상담이나 교육이 절실히 요구

II. 2012년 국내 가계경제의 어려움

○ 소득 증가 둔화 및 실질소득 정체

-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소득 증가는 계속 둔화 추세
 - 높은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실제 실질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제로내지 마이너스 상태
- 가계의 소득 만족도 저하
 - 2011년 12월 발표 통계청 사회조사의 소득 불만족비율이 2009년에 비해 46.6%에서 49.1%로 2.5% 증가함



* 통계청, 사회조사 참조 및 2011-12-16 한국경제신문 인용

○ 고정비 증가로 인한 가계수지 악화 예상

- 2012년 조세부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
 - 고령화로 인한 사회부담금(각종 사회보험료 등)이 확대되어 가계부담이 증가
- 필수생계비품목 비용 증가로 기초 생활비용 증가
 - 장바구니 소비자물가, 전월세증가 추세로 인한 주거비 상승,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교통·통신비 증가 등

○ 가계부채 문제와 가계저축률 하락 문제

-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원리금 지출액의 증가
 -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지만 개별 가계 내에서도 소득대비 부채규모와 이자 비용이 일정이상 되면 가계 안정을 위협
 - 개인의 삶을 무력화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켜 일자리를 위협하며, 개인신용 하락에 따른 이자비용과 파산위험이 증가
 - 가정의 불안 요소가 되어 가족 내 갈등이 심화
- 고령 노년층이 될수록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저축성향은 낮아지므로(생애주기가설) 저축률은 하락함.
 - 가계내의 저축률은 하락은 예비비 사용을 증가시켜 자산을 비용화하여 특히 여유가 없는 저소득계층의 위험이 높아짐.

○ 가계 재무구조 악화 추세

- 가계수지 적자 구조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면 가계재무건전성이 취약
 - 가계지출은 소득을 초과하고, 가계자산은 지속 감소하고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경우 가계 재무제표상 현금흐름과 재무상태의 악순환구조 가능

- 2011년 3/4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도시근로자 전체가구에서 4.3% 증가하였으며, 특히 저소득 계층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득2분위에서는 15.5% 증가. 반면, 소득5분위에서는 오히려 21% 하락
- 가계 순금융자산 증가금액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1년 3/4 분기는 전분기보다 가계금융자산은 41 조 감소하고, 가계부채는 20 조 증가하여 총 약 61 조의 순자산 감소를 기록

적자가구비율(도시근로자, 2인이상, 가구기준) 전년누계비 증감율

(단위: %)

5분위별 적자가구비율	2010 3/4	2010 4/4	2011 1/4	2011 2/4	2011 3/4
전체	2.6	1.7	11.3	4.8	4.3
1분위	3.8	0.3	10.3	5.9	4.1
2분위	5.2	8.2	32.4	13.7	15.5
3분위	2.2	1.9	12.0	10.7	4.0
4분위	-0.7	-1.0	1.9	-1.0	2.5
5분위	-4.1	-4.2	-22.2	-25.1	-21.2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III. 가계재무관리 교육의 필요성

○ 가계재무관리란?

-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문적 정의들

가면 포그 (1994)	가계재무관리(Personal Financial)란 '재무적 성공을 달성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개인이나 가계의 자원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가계재무관리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무계획, 현금 및 신용관리, 지출관리, 투자계획, 은퇴 및 유산계획을 다루고 있다.
김경자 (1993,2003)	가계재무관리행동이란 자신의 소득과 지출, 저축에 대해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한 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고 구체 적인 행동계획을 세우며 또한 설정된 재무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고 수행한 재무행동계획을 평가, 수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은화 (2008)	재무관리행동을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가계의 재무목적에 맞게 증대시키고 보전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 이라고 정의하며, 실행부분을 영역별로 세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관리행 동은 재무계획영역, 소비및지출영역, 저축및투자영역, 위험관리영역, 신용관리 영역으로 구분되어지며, 이러한 5가지 영역을 통해 가계는 기대하는 재무목표 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국내외 가계 금융/재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

- 최근의 경제상황의 악화와 개인의 재무관리능력 미비 등으로 가계재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계가 증가하고 있는 바, 가계재무관리 교육의 필요성이 점증
 - 극단적인 경우에 개인파산까지 이룸(<도시 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과 경제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아동가정상담학과, 재인용) (www.cyworld.com)
 - 가계의 재무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가계의 문제이므로 가족원의 재무관리능력배양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재무/경제 교육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음

< 국내외 학자와 연구자의 가계 금융/재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

경제학자 라구람 라잔 (미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석좌교수)	"소득 불평등", "무역 불균형", "금융계의 리스크 확대"가 핵심 원인이며 오히려 "주택대출 확대"나 "외환보유고" 등은 작은 축에 속한다고 말하였다. "금융위기는 교육 불평등(Inequality) 에서 시작됐다."
로버트 실러 (예일대 경제학과, 금융대학원 금융학 교수)	"...이처럼 대중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우선 부자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포괄적인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연차보고서)	"금융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 금융위기의 형성과 확산 과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금융교육 시스템이 아직 미흡한 수준임.", "금융지식과 금융교육의 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부와 각 기관의 획기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금융이해력 제고를 통한 금융역량 강화가 필요함." '금융지식 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금융교육 체제 구축 방안 연구'(이남철 조준모 전현중 김장희)
토마스 프리드먼(2008)	"수동적, 폐쇄적, 안정적 가계재무관리행동으로는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져 빈곤화가 진행"

(주)플랜은 대표, 한국가계재무관리회 교육개발이사 유의선(02-585-1188, ceo@sampla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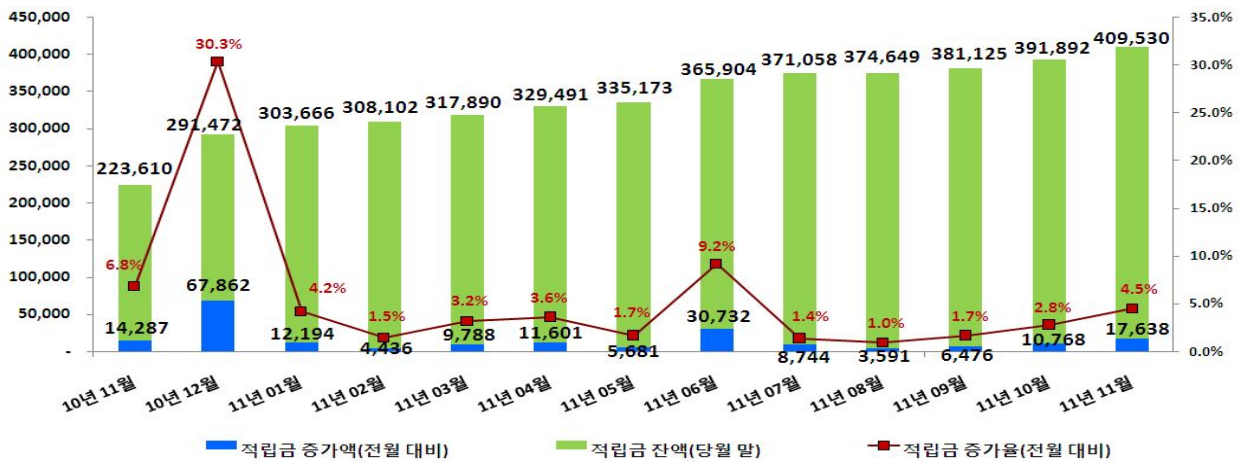
□ 퇴직연금통계 (2011. 12월 현재)

○ 적립금 규모

- 2011년 11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40조 9,530 억원으로 전월말(39조 1,892 억원) 대비 1조 7,638 억원 증가
 - 전년말(29조 1,472 억원) 대비 40.5%(11조 8,058 억원) 증가
 - 전년 동기('10.11월) 적립금 증가액(1조 4,287 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퇴직연금 도입('05.12월) 이래 최초 40조원 돌파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30,755 개소로 전월말(125,504 개소) 대비 4.2% 증가
 - 쉐 사업장(1,507,158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8.7%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73,923	35,814	15,402	4,122	658	836	130,755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5.8	21.4	30.8	40.0	48.3	74.6	8.7

자료 : 금융감독원

□ 洗心錄

□ 기업은 곧 사람이다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한다.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한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인사의 중요성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관포지교(管鮑之交)'란 고사성어는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중과 포숙에 관한 이야기다. 자신을 활로 쏘아 죽이려 했던 관중을 재상으로 발탁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환공의 리더십이 주요 줄거리이다. 환공은 관중을 재상으로 기용하면서 천하를 호령하는 패주가 되기 위한 방법을 물었다. 이에 관중은 '사람을 알고, 알았으면 모셔와 쓰되, 소중하게 활용하고, 모든 일을 믿고 맡기고 위임' 하라고 말한다. 즉 천하의 패주가 되는데 있어 방해 요소로서 첫째, 인재를 몰라보는 것, 둘째, 인재를 알고도 기용하지 않는 것, 셋째, 인재를 기용하고도 소중하게 쓰지 않는 것, 넷째, 소중하게 쓰겠다고 하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의심하는 것이라 하였다.

현대 경영에서 기업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7가지로 구분한다. Man(사람), Money(돈), Material(자재), Machinery(장비), Manufactor(제조), Marketing(판매), Management(경영 방법), 이른바 7M이다. 이 7가지 요소 중에 Man은 나머지 6개를 움직이는 주체이다. 1M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6M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도 하고, 반대로 축소와 퇴보를 가져오기도 한다. 기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좋은 기업이 되려면 능력 있는 인재를 많이 확보해야 하고, 또 기업 안의 구성원들이 가진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인재는 그저 데려다 쓰는 존재가 아니라, 모셔와 따라야 하는 존재다'라는 말까지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 현실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인재를 함부로 쓰거나 입을 막는 일이 다반사이다. 이럴 경우 기업 구성원들은 기운이 빠지고 조직은 강해질 수 없음이 자명하다.

백락일고(伯樂一顧)

'명마도 백락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는 의미.

재능 있는 사람도 그 재주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 빛을 발할 수 있다

- 전국책(戰國策) -